

(다) 재배관리 작업

병충해 방제는 배부식 인력분무기(탱크 용량 15~20L)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배부식 인력분무기는 제초제 살포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과립상의 미생물 비료는 300~500평에 10kg를 인력으로 시용하고 있으며, 생육중 제초는 인력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임하삼의 경우는 가능한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않고 자연상태에서 자라게 하는 것으로 병충해 발생시 인력분무기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 방제는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비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수확 작업

인삼 수확작업은 쇠스랑 등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인력으로 하고 있었으나 평야지 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트랙터용 굴취식 인삼 수확기가 사용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하삼 재배지에서는 10년 이상된 인삼을 곡괭이, 삽 등으로 인삼 주위를 파낸 후 꼬챙이 등으로 흙을 제거하면서 세근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확작업을 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다.



(트랙터용 로타리)



(트랙터용 치즐플라우)



(트랙터용 인삼수확기)

그림 9. 인삼 재배 농가의 인삼 수확기

3. 중국 인삼 주산지의 인삼재배기술 현황과 전망

가. 중국의 인삼재배 역사 및 주산지

중국의 인삼재배 역사는 기원전 3,500(갑골문합집)~4,000년(신농상백초 전설)으로 추산되며, 중국 인삼의 발원지는 산서성, 하북성, 산둥성 일대였으나, 기후조건의 변화 및 산림채벌에 의한 환경변화로 인삼 생육환경 기능이 상실되어 동북지역으로 재배지가 이동되었다. 청나라 시기 이후 동북지역이 주요 생산지로 형성되었다.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으로서 남쪽으로 요녕성의 관전(寬甸)에서 길림성의 무송, 장백, 집안, 돈화 및 안도현, 흑룡강성의 이춘지역까지 분포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하북성, 산둥성 및 운남성지역에서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길림성이 전체 재배면적의 약 70 ~ 80%를 점하고 있다. 요녕성의 주 재배지역은 옛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성으로 알려진 환인(桓仁)을 중심으로 신빈(新賓), 청원(淸原) 및 관전(寬甸) 지역등에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북쪽으로 흑룡강성의 철력(鐵力), 이춘(伊春), 목릉(木凌) 등에 대량 재배되고 있다.